

엘살바도르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7. 1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8
V. 종합의견	9

엘살바도르

I. 일반개황

면적	21천 Km ²	GDP	187억 달러(2006년)
인구	6.76백만 명(2006년)	1인당 GDP	2,759달러(2006년)
정치체제	대통령제	통화단위	Colon(C)
대외정책	자유주의, 우경중립	환율(달러당)	8.75(2006년)

- 엘살바도르는 과테말라, 온두라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미의 소국으로, 면적 2.1만 km²(한반도의 1/10), 인구 약 7백만 명, 1인당 GNI 약 2,759달러(2006년)인 하위중소득국임.
- 1992년 1월 평화협정체결로 13년 간에 걸친 내전이 종식되었으며, 평화협정의 순조로운 이행을 통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지속하고 있음.
- 2001년 달러 공용화 정책 실시 이후 이자율 하락, 물가 안정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e
경제성장률	2.3	1.8	2.8	4.2	3.4
재정수지 / GDP	-2.1	-0.6	-1.1	-1.1	-0.7
소비자물가상승률	2.1	4.5	4.7	4.0	4.3

자료 : IFS, EIU

□ 경제성장률 소폭 하락

- 2001년 이후 2005년까지 1.5~2.8% 내외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졌으나, 2006년 들어서면서 태풍 및 화산폭발 피해 복구공사에 따른 건설업 호조, DR-CAFTA 발효에 따른 수출 호조, 민간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4.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07년 역시 민간소비 및 투자 호조의 지속이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으나, 대미섬유수출시장에서 마길라업(보세가공업)의 수출경쟁력 하락 추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2007년 전체로는 3.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4%대의 물가상승률 유지

- 2001년 달러공용화(Dollarization) 시행은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이후 농산물 가격 상승과 고유가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4.0~4.7%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07년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며 4.3%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긴축정책 기조 유지 노력으로 재정적자 소폭 감소

- 2005년 10월에 발생한 태풍 스탠(Stan)과 일라마떼펙(ilamatepec) 화산 폭발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 실시로 정부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2005년 및 2006년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1.1%로 확대되었음.
- 2007년에도 여전한 재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카(Saca)정부의 긴축정책 기조 유지 노력에 힘입어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0.7%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2. 경제 구조 및 정책

□ 달러공용화로 인해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 엘살바도르는 2001년 1월부터 미 달러를 자국통화(C8.75 : US\$1)와 함께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달러공용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만성 인플레이션 극복, 금리 하락에 따른 기업 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으나, 달러공용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긴축재정을 시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공공부채 상환부담 과중

- 2001년 달러공용화 제도 도입 이후 긴축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공공부채 규모 증가로 인한 부채상환부담과 여전히 낮은 세수율(2000년 GDP의 10% → 2006년 GDP의 13.4%)에 따른 소폭의 세수 증대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 개선 및 부채 축소에 어려움이 예상됨.

□ 무역특혜 조치에 힘입어 선진국 시장접근에 유리

- 미국의 무역특혜조치(DR-CAFTA)로 인해 미국시장 접근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보세가공무역업인 마길라산업이 발달하였고,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증가하여 엘살바도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친시장 경제정책 적극 추진**

- 내전 종식 후 외국인투자 유치 및 수출장려를 위해 외국인투자보장촉진법, 수출활성화법, 자유무역지대 및 보세지역관리법 등을 제정하여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달러공용화 제도 성공적으로 정착**

- 달러공용화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14%에 달하던 대출금리가 달러공용화 제도 도입 이후 6~7%대로 낮아져 기업의 투자활동이 활성화되었으며, 물가상승률도 5% 이하로 안정되었음.
- 또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도 크게 늘어나서 2003년에는 1.4억달러였던 데 반해, 2007년에는 전년 대비 263% 증가한 5.1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e
경 상 수 지	-702	-628	-911	-855	-898
경 상 수 지 / G D P	-4.7	-4.0	-5.3	-4.6	-5.1
상 품 수 지	-2,287	-2,660	-3,105	-3,689	-4,139
수 출	3,153	3,339	3,429	3,567	3,960
수 입	5,439	6,000	6,534	7,257	8,099
외 환 보 유 액	1,792	1,754	1,723	1,815	2,317
총 외 채 잔 액	7,080	7,823	7,088	7,518	7,755
총 외 채 잔 액 / G D P	47.1	49.5	41.5	40.3	38.4
D. S. R.	10.6	10.8	8.6	10.7	8.9

자료 : IFS, EIU

□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 지속**

- 2006년에는 주요수출품의 국제시세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에 힘입은 소비재 수입 증가, 고유가에 따른 석

유수입액 증가 등으로 인해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37억 달러로 증가함.

- 특히, DR-CAFTA 발효 이후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중미국가들과의 섬유수출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DR-CAFTA 시행 후 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07년에도 상품수지 적자는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 경상수지 적자규모 확대 추세

- 동국은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를 경상이전수지 흑자로 보전해 왔음. 연간 20~30억 달러 대의 해외근로자 송금으로 무역적자를 보전하고 있으나, 외채원리금 증가로 인한 소득수지 적자확대 및 소비재 수입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확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2006년에도 해외근로자 송금액이 3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적자규모 확대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4.6%인 8.6억 달러를 기록함.
- 2007년에도 고유가와 내수 회복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각각 41.4억 달러와 8.9억 달러(GDP의 5.1%)로 확대될 전망이다.

□ 외채규모 감소 노력

- 전임 플로레스 정부 이후 내채를 장기 외채로 전환하는 국가채무재조정 정책 시행으로 총외채규모와 D.S.R.이 증가함.
- 그러나 2006년 총외채 규모를 GDP의 4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정책임법의 시행으로 GDP 대비 총외채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2007년 총외채 규모는 78억 달러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GDP의 38.4%로 목표 범위내로 줄어들었으며, D.S.R.도 10%를 넘지 않는 등 외채 원리금 상환부담은 비교적 가벼운 수준이었음.

□ 외환보유고 증가 추세

- 글로벌 본드 발행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미국거주 동포들의 모국 송금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 10월말 외환보유액도 23억 달러로 2005년 대비 35% 증가하였음.
- 특히, 약 230만 명에 달하는 미국 거주 엘살바도르인들의 본국 송금액이 중요한 외환가득원이 되고 있음. 송금 규모는 2005~06년 각각 28.3억 달러와 3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 3월까지 전년대비 17% 증가한 14억 달러에 달하였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내전 종식 이후 정국 안정 유지

- 1981년부터 지속되었던 좌익 게릴라(FMLN)와의 내전이 1992년에 UN의 중재로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13년 만에 종식되었고, FMLN이 제도권 정치세력으로 진입함에 따라 대체로 정국이 안정을 되찾음.
- 2004년 3월 실시된 대통령선거(임기 5년)에서는 1989년 이래 집권하여 온 국민공화연합(ARENA) 소속 안토니오 사카(Antonio Saca)후보가 58%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됨으로써 국민공화연합 정권이 4회 연속 집권함.

□ 친여정당과의 연합으로 정국안정 유지

- 2006년 3월 총선에서 집권당인 국민공화연합(ARENA)은 종전보다 5석 늘어난 34석을 차지하였으며, 친여 성향의 국민화합당(PCN)과 기독교민주당(PDC)이 각각 10석과 6석을 차지함. 이에 따라 ARENA, PCN, PDC의 전체 의석수가 총의석수의 과반수를 8석 상회하는 50석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민영화, 자유무역협정, 외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제1야당인 민족해방전선(FMLN, 32석)과의 협조가 필요한 상

황이라, 정부의 경제개혁정책 추진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미국 및 주변국과는 우호적 관계 유지

- 전통적으로 미국과 우호선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엘살바도르는 중미국가 중 유일하게 이라크에 380명을 파병하였으며, 2007년 12월 현재까지도 파병부대를 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부시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엘살바도르를 미국의 동맹국으로 지명한 바 있으며, 금년 7월 18일 미국 의회는 8월 6일을 “엘살바도르의 날(Salvadoran American Day)”로 지정한 바 있음.
- 또한, 미국거주 엘살바도르인은 약 230만 명에 이르고 있는 데, 미국 정부는 이중 약 22만 명에게 임시보호지위(Temporary Protection Status: TPS)를 부여하여 이들이 2009년 3월까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함.

□ 역내 지역통합 가속화 전망

- 중미 4개국간 인적·물적 이동 자유화 정책 실시 및 DR-CAFTA 발효에 따라 역내 경제통합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중미간 경제통합을 선행조건으로 내세운 EU-중미간 FTA 추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2. 사회 및 소요사태

□ 치안불안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내전 재발 가능성은 낮음

- 과거 오랜 내전으로 다량의 총기가 사회에 유포되어 전투원 출신 중 사회적응에 실패한 일부와 빈민들에 의한 강력 범죄가 빈발하고 있음.
- IDB에 따르면, 이 나라는 세계에서 살인사건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서 인구 10만 명당 140명(1일 평균 20건)의 비율로 살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타 노상강도, 납치, 은행 강도 등이 증가하여 국내 치안이 불안한 상황임.
- 특히, 내전 당시 미국으로 이민한 엘살바도르인들의 조직폭력단체인 마라스(maras)가 엘살바도르로 유입되어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자행하면

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현재 마라스 조직원 수는 약 1만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 그러나 평화협정의 성공적인 이행으로 내전 재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IV. 국제신인도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동국에 대한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는 비교적 양호

- 엘살바도르는 Moody's사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인 Baa3 등급을 부여받고 있는 등 국제신인도가 비교적 양호함.
-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동국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음.

- o OECD : 4등급 ('05. 6) → 4등급 ('06. 6)
- o Moody's : Baa3('03.12)
- o S&P : BB+('99.4)
- o Fitch : BB+('00.5)

□ 국제자금조달 원활

- 국제금융시장에서 어려움 없이 채권을 발행하고 있음. 2006년 4월에 4억 달러의 글로벌 본드를 발행(수익률 7.636%)한 데 이어 7월에도 225백만 달러의 글로벌 본드를 비교적 양호한 조건(수익률 7.941%, 미 재무증권 + 275bp)으로 발행하는 등 국제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

2. 주요 ECA의 인수태도

□ ECA 및 국제금융시장의 평가는 양호한 수준

- 지난 1995년 IMF로부터 SDR37.68백만의 대기성 차관(Stand-by Loan)을 도입한 이후 1997년 2월과 1998년 9월 추가로 대기성 차관에 합의하였으나 자금인출은 하지 않았음. 한편 지난 2001년 12월에는 세계은행으로부터 2.7억 달러의 양허성 차관을 도입한 바 있음.
- US EXIM, ECGD 등 주요 ECA들의 동국에 대한 지원 방침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 o US EXIM : 최고부보율 적용
 - o ECGD : 최고부보율 적용
 - o 독일 Hermes : 단기 전액인수 가능

3. 외채상환태도

□ 외채위기경험국이나 외채상환태도 양호

- 동국은 1990년 9월 파리클럽과 156백만 달러의 채무 리스케줄링 협상을 타결하였고 1993년에는 미국으로부터 450백만 달러의 채무감면을 받은 바 있음.
- 그러나 이후 외채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함.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교역규모 : 92.6백만 달러(2006년)

- 수출 86.8백만 달러
- 수입 5.8백만 달러

□ 해외직접투자현황 : 79건 40백만 달러(2007년 9월)

V. 종합 의견

- 엘살바도르는 GDP의 27%,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마킬라 산업이 미국의 수주 감소, 중국 및 기타 중미국가들과의 경쟁 격화, 달러공용화 제도로 인한 대미 가격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고유가로 인한 석유수입액 급증 문제와 함께 만성적인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구조 타개를 어렵게 하고 있음.
- 또한 달러공용화제도 시행으로 인해 외부충격을 흡수할 기체가 사라진 상황에서는 재정건전화가 경제 안정의 필수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경제 성장률에 따른 세수 확보 기반 부족, 교육, 보건, 연금 등 사회복지 부문 지출 압력, 태풍 및 산사태 등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으로 인해 재정 기반이 취약한 상황임.
- 그러나 엘살바도르는 중미 국가들 중에서도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에 속하며, 현 사카(Saca)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에 힘입어 정국 안정 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또한 달러공용화 제도를 바탕으로 물가, 금리 수준 등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있고,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인도도 양호(투자적격등급국가)하며, DR-CAFTA 발효로 인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확대 등 향후 경제전망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문의 : 전문연구원 이은경 (☎3779-6676)
E-mail : twoek1982@koreaexim.go.kr